

Agenda

August, 2018 | 김수진 기자

Agenda 담당 김수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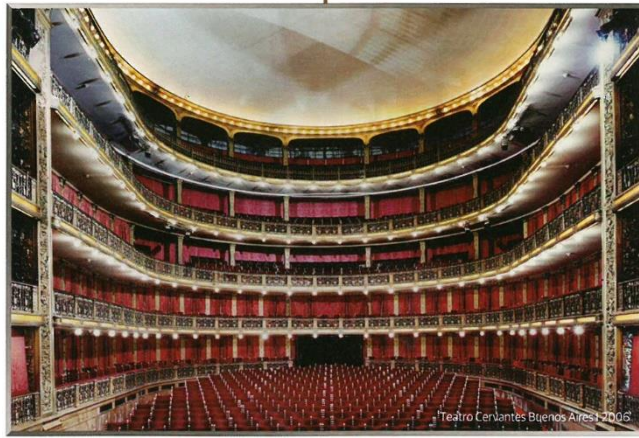
시간과 역사가 호흡하는 공간의 초상

독일을 대표하는 여성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Candida Höfer는 세계 여러 도시의 '공적인 공간'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귀족 문화였던 음악을 대중화한 뒤셀도르프 시립극장, 전쟁이 남긴 상흔을 간직한 베를린의 노이에 미술관,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의 집합체인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 등을 뷰파인더에 담는다. 건물의 미학적 아름다움보다 공간의 쓰임이나 용도에 초점을 맞춰 중립적 시선으로 사실을 포착하는 유형학적 사진의 대가로 토마스 루프, 토마스 스트루트, 안드레아스 거스키 등 독일 현대사진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칸디다 회퍼의 작품은 공간에 대한 극사실적인 기록이지만 완벽한 테크닉으로 구현한 화면 구성, 정교한 빛의 통제, 독특한 컬러 배합이 어우러지며 시선을 압도한다. 사진 속에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공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인물을 배제해 오히려 그 존재를 환기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작가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장소에 깃든 빛을 활용해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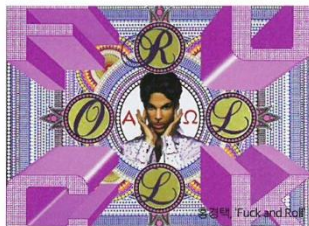
하며, 별도의 조명을 쓰지 않고 후보정도 하지 않는다. 공간을 탐색하고 구도를 잡은 뒤 셔터를 누르는 가장 기본적인 정제된 과정을 통해 인간, 시간, 역사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의 초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제갤러리에서 8월 26일까지 칸디다 회퍼의 개인전 <Spaces of Enlightenment>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근래까지 촬영한 '공연장Theatre, Opera House', '도서관 Library', '미술관Museum, Collection' 등 특정 기관의 공간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K2관 1층에서는 뒤셀도르프 시립극장을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극장과 오페라하우스 내부를 담은 작품을 소개하고, 2층에서는 중세 바로크 양식의 수도원 도서관, 율리아 슈토세크 컬렉션 등 도서관과 미술관의 공간을 전시한다.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고, 인간의 '깨달음'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공간이 한 편의 서사처럼 색다른 사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한중 아방가르드 대표 작가전>

한국과 중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해 <한 중 수교 25주년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힘입어 두 번째로 기획한 전시다. 한국적 팝아트의 대표 주자인 김동유와 홍경택, 향불 화가로 유명한 이길우, 제주 건축가 고광표 등 국내 작가 7인과 중국 현대미술계의 대표적 사실주의 화가 저우쑤아(周春秀, 중국 사진계의 거장 왕칭송(王慶松, <타입>이 선정한



세계 예술 영화감독 10인 중 한 명인 위안치웨이(安奇 등 중국 작가 5인이 참가할 예정. 작가들은 기존 작품을 비롯해 예술과 지인, 사람이 어우러진 제주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를 기획한 아시아예술경영협회 박철희 대표는 "이번 전시는 '왜, 제주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라며 "제주도가 홍콩, 상하이 못지않은 국제적인 예술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8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